

사설

안거 정신을 일상화 하자

5월 15일(음력 4월 15일)부터 하안거가 시작되었다. 안거 기간에는 3개월간 외부출입을 삼가고 참선수행에 매진한다. 따라서 각 종림의 방장스님들이 결제법어를 통해 마지막 관문을 뚫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지나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제가자들 역시 출가자와 형태상의 차이는 있지만 안거문화가 있었다. 그것은 육재일이다. 비록 출가자는 아니지만 출가자의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다짐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요즘들어 육재일을 지키는 신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리려 출가자와 마찬가지로 안거에 동참하여 실천수행하는 제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동안거에는 20여 곳의 사찰과 재가선원에서 3천4백여명의 제가

자들이 안거를 마쳤다고 한다. 현대사회가 불개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체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점에서 안거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아의 재발견이자 각 개인의 존재의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의하면 범성일여라 했다. 그런 점에서 장소와 시간, 출제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다한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내면을 성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수행납자들은 이 기회에 대도를 성취하여 사회적으로 회향하길 고대하며, 제가자들은 생활과 수행이 하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세계에 자랑해도 좋을 수행문화가 아닌가? 더하여 부처님의 생명존중정신도 안거문화의 확산과 함께 부각되길 희망해 본다.

불교환경 워크숍에 거는 기대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된다. 조계종이 '불교환경 워크숍'을 개최해 그간 진행되어 온 불교계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내놓는 자리를 만들었다. 불교계 환경운동을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자못 기대가 크다. 불교만큼 친환경적인 종교는 없다. 일체 만물의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닌가? 그래서 불교적인 삶 자체가 가장 친환경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운동'으로서의 연륜이 그리 길지 않다.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환경운동은 개별 단체의 역량에 의지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단위 조직을 뛰어넘어 연합체적인 힘을 키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중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 속에 활동 범위와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관통 저지 운동과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금정산 관통 반대 운동을 3년여 동안 펼쳐며 불교계에 환경운동은 가장 현실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 정진은 이제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하나의 '성숙한 항의' 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차제에 조계종이 개최하는 불교환경 워크숍은 불교 환경운동의 이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내고 실천 과제를 분명하게 도출해 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길지 않은 일정이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보다 진지한 토론과 보다 뜨거운 연구로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급한불'

일응스님 입적으로 '빈자리', 장기화 곤란

영산재 작법무 기능을 유일하게 보유했던 어장(魚丈, 영산재 작법에 달통한 이를 이르는 말) 일응스님이 11일 입적(圓寂사 4년)함에 따라 새로운 기능보유자 지정 등 영산재의 전승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응 스님의 입적으로 73년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이래 30년 동안 영산재 복원과 계승에 힘써 온 '영산재 1세대'가 모두 역사 속에 묻혔다. 이에 따라 전통 불교의식인 영산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보유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7년 도량장엄 기능보유자 자광스님이 입적한 데 이

구해·일응·기봉 스님 등 차세대 魚山 유망

심익에 상당시일...연내 지정은 어려울듯

어 2000년 범음법재 기능보유자였던 송암·벽음 스님이 입적하면서 영산재 기능보유자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영산재 기능을 보유했던 스님들을 주축으로 영산재를 전수해 온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마지막 기능보유자인 일응스님 마저 입적하자, 문화재청에 보유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후보유자인 구해스님(범음불교대 학장)과 전수교육보조자인 일응, 기

봉, 송강 스님 등이 영산재를 이끌어 갈 차세대 어산(魚山)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전수조교평가대상자, 이수자, 이수평가대상자, 전수생 등 40여명의 스님들이 영산재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내 영산재의 기능보유자 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능보유자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전수한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운영 최우수사찰 도선사

조계종총무원 정기감사



서울 도선사가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이 실시한 직영 및 특별분담사찰

정기감사 결과 사찰재정 투명성과 운영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2일 총무원장실에서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사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찰 운영의 모범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연대' 민평 심 민섭

행자교육원령 교육법에 위배 조계종법규위, 이의제기 인정

교육법과 상치되는 행자교육원령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13일 22차 위원회를 열고 행자교육원 수확자격 적용과 관련, 선운사의 행자가 제기한 '행자교육원령이 교육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의 제기를 인정하고 종령(행자교육령)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법 제55조에는 '행자교육원 수확자격을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교육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자교육원 입교감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자교육원령 제11조에는 '이혼경과 기간이 일

교일 기준 6개월 미만인 자'로 돼 있다.

한명우 기자

문화재위원장 정양모씨

13일 전체회의 열려

문화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69)을 전체위원장으로, 안휘준(63), 한영우(65)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양모 신임 문화재위원장은 한국도자사 전공으로 국립경주박물관장, 한국미술사학회장을 지냈다. 임기는 2005년 4월 25일까지다.

권형진 기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12-14일 제주 서귀포 약천사에서 제24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를 개최하고, 한·일 양국의 불교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공생-대승불교의 생명관'을 다할 때 평화로운 인류 공영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측 대표단 미야바야시 쇼겐 단장은 "공생의 자각에 의해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고 평화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대승불교 정신을 다른 나라에 적극 일러 나가는 한편 북한에 피랍된 한국인과 일본인의 귀국을 불교 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불자들이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권형진 기자

한일불자들이 세계평화에 기여하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제주 약천사에서 대회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합동 법요식, 세미나, 공동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법장스님은 대회사에서 "불교도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 인류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불멸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15일 강릉당간공주유리당금동보살입상

1면에서 계속 국보급 불상 강탈 당해

이들은 또 같은 전시실에 있던 조선시대 분청사기 1점과 고려시대 삼강형자 점시 및 장 등 비지정 문화재 3점도 함께 가져갔다.

들어가는 유물을 털어갔다. 그러나 2층 무명왕릉 전시실과 달리 1층 전시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당시 적외선 감지기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 경찰 2명도 근무중이었으나 정문 등 외곽순찰만 돌아

관한들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했다.

남북평화통일 기원 및 영가천도 수록대재

귀의 삼보하옵니다.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의 뜻 깊은 의미가 전경으로 인해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유주무주수·륙·공의 모든 영가들을 위안하고 천도하는 여법한 수록대재가 원만 회향된다면 진실로 불교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을 우리 원용종이 앞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창종 23주년을 맞는 원용종의 이번 신록사 수록대재가 불안한 증생을 위로하고 모든 영가들을 원만히 천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발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모든 종도 및 불자들이 수희 동참하여 마음을 모아 야 하겠습니까.

총무원장 법륜 합장

증 정 영산 일공
부 증 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봉행위원장 법륜
부 위원 장 성관, 선진, 대월
봉 행 위 원 체관, 정관, 천호, 인관, 법원, 선덕, 성욱, 해림, 체의, 불선, 보선, 진연, 정광, চে명, 은혜, 해광, 대웅, 선명, 효계, 벽봉, 선덕, 석경, 혜민, 체도, 풍원, 보운, 성해, 홍재, 정광, 대천, 불선, 송월, 진운

- 행사안내
- 일 시 : 불기 2547년 5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 법외장소 : 여주 신록사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번지
☎ 031)885-2505
 - 주 관 : 대한불교 원용종 총무원
 - 문 의 : 서울 구로구 구로 2동 704-39번지
전화 02)853-0431, 0531
팩스 02)853-0532

大韓佛敎 圓融宗 수록대재 봉행위원회